"학생 고객을 잡아라"

백화점들 일제히 '방학 마케팅'

지역 백화점들이 방학을 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단기특강,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방학 마케팅'에 나섰다. 가족단위 고객들의 지갑을 열겠다는 전략이다.

19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백화점 신세계아카데미는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신문사 체험견학교실(27일, 8월 3일), 재활용품을 활용해 조형물 만들기(8월7일, 8월14일)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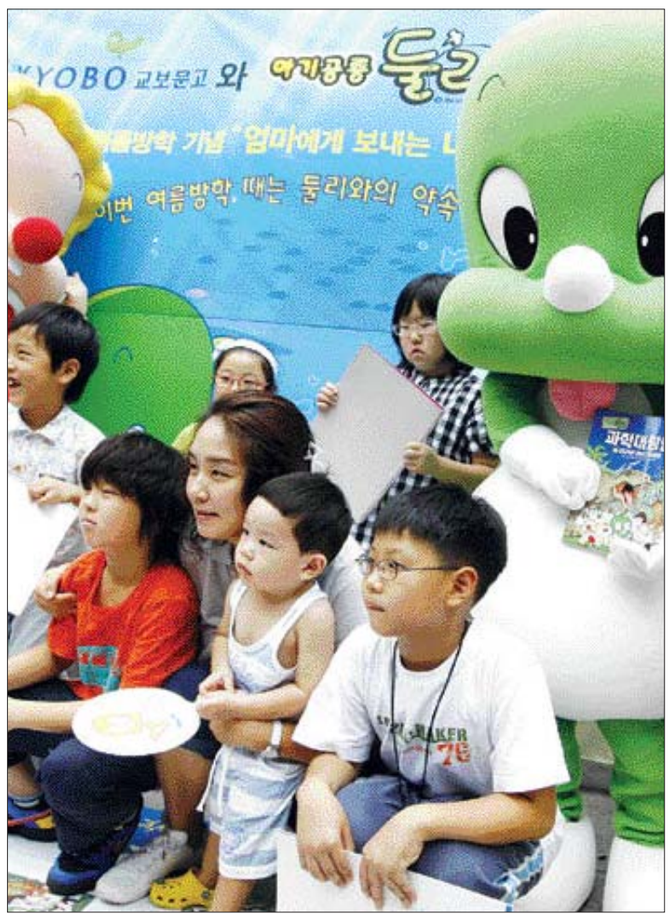
또 26일날은 즐거운 일요일 Family Together를 열고 뮤지컬 '금도끼 은도끼'(오후 2시), 온 가족이 함께하는 미끌미끌 풀그림(오후 4시)을 연다. 문의 062-360-1500. 장소는 9층 아카데미.

롯데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는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역사 테마기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불국사, 천마총 등 신라시대 유적을 살펴보는 '신라 천년의 신비를 찾아서'(15일)와 용주사, 수원화성 등을 돌아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찾아서'(22일) 등이 이어진다. 또 여름방학 단기특강으로 독서 신문 만들기(8월10일), 체험학습 보고서 만들기(8월11일), 여름철 별자리판 만들기(8월 8일), 줄줄이 명언카드 만들기(8월 8일) 등도 준비된다. 이밖에 신나는 에디슨 과학교실(15일~8월22일), 예쁜 글씨로 만드는 방학과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열린다. 문의 062-221-1810. 장소는 롯데문화센터 광주은행 본점 5층.

현대백화점 광주점 문화센터도 27일부터 '청소년 데생&수채화', '어린이 방송 아나운서 교실' '글씨교정 POP' 등 여름방학 특강을 문화센터에서 진행한다. 또 토요 가족 체험 교실을 열어 부모와 함께 '초콜릿 만들기'(25일), '식빵 피자 만들기'(8월8일) 등을 진행한다. 문의 062-519-2233.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백화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아카데미 강좌를 7~8월 방학 기간에 다양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학습만화 둘리와 함께 19일 서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웅진씽크빅의 둘리 학습만화출시기념 거리 이벤트에서 아이들이 둘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간 증시 포커스

IT 차익매물·펀드환매 경계 대형주 시장 주도 이어질 듯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주목할 이벤트는 21일(현지시각 기준)에 예정된 버냉키 FRB의장의 하원청문회 연설이다. 청문회에서 버냉키의장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소위 '출구전략'(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구전략의 조기 도입이 자칫 미약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주 국내증시는 주초의 급락세를 딛고 빠르게 회복세로 돌아서 마침내 종가기준으로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북한 관련 변수가 조기에 소멸한데다 악재로 받아들여졌던 미국 CIT은행의 파산 소식에도 오히려 미국 증시는 나흘 연속 급등세를 나타내자 투자심리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잠시 주춤했던 외국인 매수세가 강도 높게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국내증시의 상승세에 주된 동력원이 됐다.

지난 주에 발표된 국내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 예상보다 좋았다는 것도 외국인의 매수세 재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외국인 매수세가 국내 증시에 국한돼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머징마켓 전반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달러-캐리 자금의 非달러화 자산으로의 이동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글로벌 자금이 非달러화자산 및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의 지속 여부는 국내증시가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 짓는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펀더멘탈의 안정에 대한 확인과 수급구도의 개선이 국내증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지만 주의를 기울여야할 부분도 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의 실적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폭이 컸던 IT주들에 대한 차익매물이 출회될 개연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지수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주식형펀드에 대한 환매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실적시즌이 전개되면서 실적이 좋고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 대표주 중심의 시장내 차별화도 심해지고 있다. 이달 들어 대형주의 상승률(4.2%)은 중형주 및 소형주의 상승률(각 0.7%, 1.1%)을 크게 앞서고 있다. 앞으로도 한동안 대형주들의 시장 주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좋아지는 대형주에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하되 하반기 모멘텀의 지속성을 감안한다면 금융주에 초점을 맞추는 시장 대응의 지속을 권한다.

박종모 굿모닝신한증권 광주지점장

친환경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개장

농식품부 오늘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안에 친환경 농산물 전문 쇼핑몰(www.eat.co.kr)을 개설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는 친환경 농산물을 B2C(생산자와 소비자 간), 또는 B2B(기업 간) 형태로 유통하기 위해 설립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값싼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문을 열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선정한 친환경 베스트 농가, 친환경 인증 획득 농가 등을 상대로 상품의 차별성, 품질, 배송, 전문성 등 10개 항목을 서류와 현지 실사로 평가해 선정한 농가가 거래에 참여한다. 친환경 인증 곡류, 과실류, 채소류, 축산류, 버섯류, 가공식품 등 500여 품목이 판매되며 10월께엔 명품 농산물 코너가 추가된다. /연합뉴스

KT 노동조합 민노총 탈퇴

KT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 94.9%로 민주노총 탈퇴를 가결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KT 노조 전국 450여개 지부에서 실시된 찬반 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 2만8천434명 가운데 과반수인 2만7천18명이 참여해 94.9%인 2만5천647명이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했다. 반대는 1천221명(4.5%)에 불과했다.

KT 노조는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0일 IT산업연맹 회의에서 탈퇴서 제출을 포함한 향후 수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분실땐 최대 45만원 지원

KT '쇼 쇼킹안심서비스'

KT는 고객이 분실 또는 도난으로 새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할 경우 최대 45만원의 휴대전화 할부 지원금을 제공하는 '쇼(SHOW) 쇼킹안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본료 월 1만4천500원의 '쇼킹안심 요금제'에 새로 가입하거나 이미 고액요금제 또는 제휴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월정액 2천500원의 '쇼킹안심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할부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할부지원금은 18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되는데 고객은 휴대전화 할부지원금의 10%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만원 이내에서 부담하면 된다.

약정 고객은 분실한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약정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입 대상은 신규 및 기변 고객이며, 새 휴대전화 개통 후 30일 이내에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연합뉴스